

# “韓 토종기술 위성안테나, 美 해군함정 가장 높은곳에 우뚝”

## Q 르포 | ‘위성통신’ 인텔리안테크놀로지 평택공장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가 가까운 경기 평택 진위면에 있는 인텔리안테크놀로지 평택제2사업장. 흰색 위성안테나가 6층 옥상 곳곳에서 푸른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모두 인텔리안테크놀로지(인텔리안테크)가 연구개발해 실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접시형의 둥근 파라볼라 안테나들 사이로 유독 네모 모양의 평평한 안테나 여러대가 눈에 띈다. 크기는 56×45cm, 두께는 12cm 밖에 되지 않는다.

인텔리안테크가 야심차게 개발, 차량 등의 지붕에 설치해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위성신호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평판형 위성안테나(Flat panel) 모델(OW10HL)로, 이달부터 납품처에 본격 공급할 제품들이다.

이 회사 강승구 부사장이 들고 있던 생수를 평판안테나에 갑자기 뿌리기 시작했다. 물은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안테나 표면을 타고 그대로 흘러내린다. 안테나에 묻은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물방울 뿐이다. 안테나 외부 전체를 오돌도돌하게 특수코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마치 고어텍스를 안테나에 입힌 셈이다. 물론 코팅 기술은 인텔리안테크가 자체 개발했다.

강 부사장은 “한번 코팅한 제품은 발수효과가 최소 5~6년은 간다. 스프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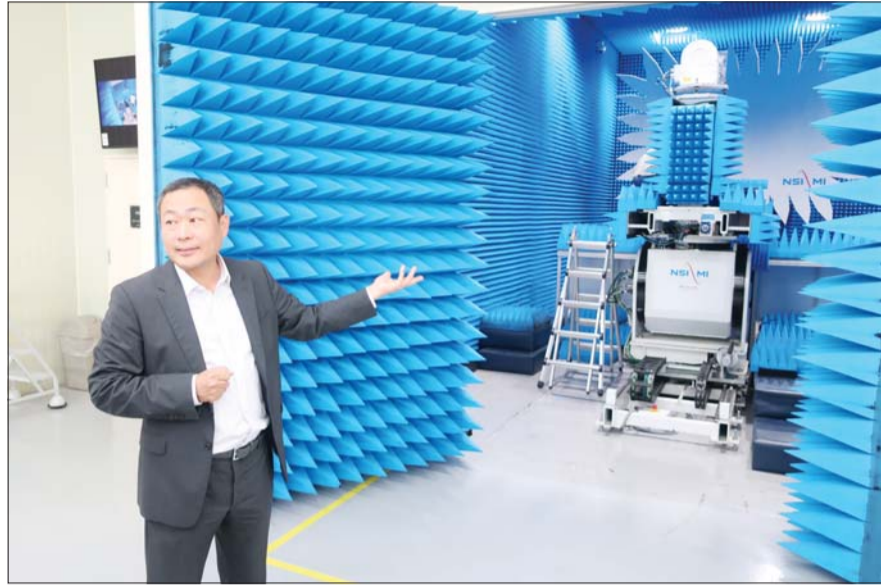
를 이용하면 효과를 더 연장시킬 수 있다. 뜨거운 사막이나 추운 극지방에서도 안테나가 제기능을 다 해야하기 때문에 내열·내한 온도는 55℃~45℃ 수준이다. 모빌리티용 제품인 만큼 극심한 흔들림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평판안테나 외부는 커브형태로 설계·제작해 폭설이 내리는 곳에서도 눈이 쌓이지 않고 위성신호를 무리없이 전달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인텔리안테크는 이달부터 영국의 위성통신사 원웹(OneWeb)에 이들 평판안테나를 본격 공급한다. 기존의 접시형 안테나에서 라인업을 넓히면서다. 특히 모빌리티용 저궤도 평판안테나는 인텔리안테크 제품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성상엽 대표는 “저궤도위성용인 평판안테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해 상용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가격은 대당 4500~5000달러 사이로 스타링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전했다.

원천기술은 모두 인텔리안테크가, 생산은 100%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다.

위성 통신은 그동안 한계가 많았던



성상엽 대표가 위성안테나를 시험하는 챔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달 ‘평판형 위성안테나’ 납품 모빌리티용 저궤도 평판안테나 인텔리안테크 제품이 세계 유일

美 해군서 WGS 위성 제품 사용 해상용 위성안테나 글로벌 1위 지난해 매출의 95% 해외서 벌어

고정궤도(GEO)에서 저궤도(LEO), 중궤도(MEO) 군집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스타링크와 원웹이 대표적인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이다.

인텔리안테크 역시 이런 추세에 맞춰 그동안 집중해온 해상용, 지상용, 항공용, 방산 분야 등에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 선보이며 시장을 추가 공략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새 저·중궤도 위성통신 분야 안테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인텔리안테크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미군까지 뚫었다.

성 회장은 “미 해군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3년 만에 WGS(Wideband Global SATCOM system) 위성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개발 완료해 납품하게 됐다. 테스트를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렸고



경기 평택에 있는 인텔리안테크 사업장.

1~3단계 모두 인증을 받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미군내에도 많은 시장이 있지만 향후 호주 등 글로벌 군대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GS위성은 ‘5개의 눈’을 의미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즉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개 국가가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이들만 공유하고 있는 위성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장을 한국의 벤처기업이 위성안테나 기술력으로 뚫은 것이다.

인텔리안테크는 해상용 위성통신안테나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선점하고 있다. 요트, 크루즈, 상선, 군함 등에 달려있는 위성안테나 대부분엔 ‘Intellian’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다.

3000~4000명이 탑승하는 대형크루

즈엔 7개의 위성안테나가 있다. 이 중 2개는 TV 수신 용도다. 이들 크루즈는 한 달에 통신료만 한화로 약 5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전화하고 영화보고, SNS 등을 하기 위해선 그만큼 빠르고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무리없이 제공해야 가능하다. 바다를 떠다니는 300여 척의 글로벌 대형크루즈에도 여지없이 대부분 인텔리안테크가 만든 위성안테나가 달려 있다.

성 대표는 2004년 인텔리안테크를 창업했다.

“이동통신(장비)은 삼성이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성통신은 (하는 회사)가 없었다. 내가 삼성과 경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기술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람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위성통신(안테나)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했다. 초기 3년은 후회도 참 많이 했다.(웃음)”

세계시장에서 큰 일을 해보겠다는 창업 당시의 목표는 인텔리안테크의 지난해 매출 3050억원 중 약 95%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엔 ‘일억불 수출의 탑’도 받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UAE(두바이), 싱가포르, 중국(상하이), 일본 등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소만 12곳에 이른다. 전세계 기업고객과 파트너사는 600곳이 훌쩍 넘는다.

“우리는 글로벌 R&D를 통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해외법인은 100% 자회사로 ‘원 컴퍼니’ 체제다. 자체 설계, 제조, 품질, 글로벌 유통, 서비스가 통일돼 있다. 1등 고객을 제일 먼저 만나 영업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다.”

세계시장을 향한 성 대표와 인텔리안테크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성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는 벤처기업협회장까지 맡으며 벤처·스타트업계 ‘애로 해결사’이자 후배들을 이끄는 선배 벤처기업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인텔리안테크가 제조해 납품하는 다양한 위성안테나들.

##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오디션 진행

오늘부터 총 530개 팀 1차 오디션 로컬브랜드 등 5개 사업유형 지원 210개 팀에 사업자금 최대 6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을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세종(조치원)과 서울에서 각각 진행한다.

‘라이콘(LICORN)’이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 로컬 분야 혁신기업’을 말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이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해 자기만의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오디션 형태의 단계별 경쟁방식을 도입해 유망 소상공인의 협력·융합, 성장 가능성, 성과 등을 평가해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 지원 유형을 기존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 트랙에서 ▲온라인셀러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을 추가한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올해에는 예선에서 총 9137곳 소상공인이 지원해 43.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류와 발표평가를 거쳐 1차 오디션에 참가할 유망 소상공인 530개팀을 선발했다.

해당 팀을 대상으로 유형별 주관기관을 통해 파트너 기업과의 팀 구성부터 발표자료 작성 및 전달 스피치스킬,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오디션은 ▲백년가게·소공인 유형(10~11일·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로컬브랜드 유형(12~14일·//) ▲라이프스타일 유형(18~20일·세종시 조치원1927아트센터) ▲글로벌 유형(26~27일·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 에비뉴 아트스탠드)을 일정별로 각각 진행한다.

1차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210개팀에게는 공간기획·시제품 제작 및 실증,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며 추후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해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한샘 분당점, 인테리어관 리뉴얼 오픈

한샘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한샘 분당점’의 인테리어관을 새로 단장하고 이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9일 한샘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연 분당점은 24년 간 1000만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하며 분당 지역 주민들의 홈인테리어 쇼핑 명소로 자리잡은 매장이다. 총

전시 면적 880평 규모로 부엌·욕실 등 인테리어 상품과 침대·매트리스·소파 등 가구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리뉴얼한 인테리어관에 선 한샘이 올해 새롭게 선보인 인테리어 공사 패키지 ‘스타일에디션 소프트 화이트’를 모델하우스로 살펴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에몬스, 경기 광주점 전시장 문열어

에몬스가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에 대형 전시장을 열었다.

9일 에몬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점 전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경춘대로 인근에 위치해 광주와 이천 지역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매장은 총 2층 규모로 1층은 거실·가구(소파, 거실장), 식탁, 침실가

구(침대, 장롱, 수납장 등)로 꾸며졌다. 2층은 매트리스 체험존, 서재·가구, 주니어 가구, 리클라이너 존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전시장은 ‘온전한 쉼이 있는 곳’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 연출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다. /김승호 기자